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8월 3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30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노건기(044-203-5160), 박병기 사무관(5172)

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 이행실적 대폭개선

- '14년 RPS 이행실적 78.1%로 전년대비 10.9%p 증가
- '16년부터 태양광-비태양광 시장 통합

□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**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이하 RPS)** 이행실적 점검 결과, **'14년도 의무이행률은 78.1%**로 **전년대비 대폭 개선(10.9%p 증가)**된 것으로 나타났다.

* RPS 의무이행률 추이 : ('12) 64.7% → ('13) 67.2% → ('14) 78.1%

○ 또한 **'16년부터 태양광**에 대한 **별도의무량이 폐지**됨에 따라 그간 분리 운영되던 **태양광-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**될 예정이다.

○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'15. 8. 28.(금)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「**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**」를 열어 '14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'16년 태양광-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.

<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요>

○ 일시 및 장소 : '15. 8. 28일(금) 14:00, 한전 서울남부지사 회의실
○ 위원구성 :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(위원장), 기재·미래·환경부 등 각부처 국장급 8명,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8명
○ 개최근거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8조

<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 이행실적 점검 >

□ **'14년도 RPS 의무이행량**은 총 10,078천신·재생 에너지 인증(이하 REC)로 **전년**(7,324천REC) **대비 37.6% 정도 크게 증가**하였으며,

○ 이 중 **태양광이 전년대비 91.1%**('13년 697천REC → '14년 1,333천REC), **비태양광이 32.0%**('13년 6,627천REC → '14년 8,745천REC) **증가**했다.

< '14년 RPS 의무이행실적 >

		'13년	'14년	증감(%)
의무량(REC)	태양광	734,820	1,390,359	89.2%
	비태양광	10,161,737	11,515,072	13.3%
	합계	**10,896,557**	**12,905,431**	**18.4%**
이행량(REC)	태양광	697,461	1,332,922	91.1%
	비태양광	6,627,400	8,745,429	32.0%
	합계	**7,324,861**	**10,078,351**	**37.6%**
이행율(%)	태양광	94.9%	95.9%	1.0%p
	비태양광	65.2%	75.9%	10.7%p
	합계	**67.2%**	**78.1%**	**10.9%p**

○ '14년도 의무이행실적 개선에 따라 **불이행량**은 **4,678REC**로 전년(893천REC)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, 이는 **총 의무량의 0.04%에 불과**한 수준이다.

* '14년도 이행연기량은 2,822천REC로 총 의무량의 21.9%

□ 이러한 이행실적 개선은 **RPS 제도가 안정화 단계**에 접어들면서 14개 공급 의무회사는 **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, 규제개선 등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 보급확대 지원정책, 신재생 설비단가의 지속적 인하**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○ 특히, 작년 하반기에는 **부처간 협업**을 통해 **육상풍력 관련 입지·환경규제를 개선**한 바 있으며,

○ 올해에는 **풍력+전력저장장치(ESS) 설비**에 대한 **가중치 우대, 수열** 등 **신규에너지원에 가중치 부여** 등 이행수단과 이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**향후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**으로 보인다.

< '16년 태양광-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 >

□ RPS 제도시행 초기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**태양광 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도입**되었던 **태양광 별도의무량**이 **'15년말을 기해 종료***됨에 따라 **'16년부터**는 **태양광-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**하 기로했다.

*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태양광 별도의무량은 '15.12.31일까지 적용

○ 그간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부과됨에 따라 **의무량**은 물론, REC **현물거래시장**, 의무이행에 따른 **비용정산가격** 등도 **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되어 적용**되었으나,

○ **'16년부터**는 **의무량, 현물거래시장, 비용정산가격** 등이 **태양광-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**해 운영되게 할 예정이다.

- 즉, 앞으로는 RPS 공급의무사들이 **할당받은 공급의무량**을 이행할 때 각사의 계획에 따라 **태양광 또는 비태양광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물량제한없이 이행가능**하며, **현물시장**에서도 태양광-비태양광 구분없이 **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**되게 된다.

□ 다만, 최근 전력거래가격(SMP)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**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**을 위해 '**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**'는 **당초 계획보다 확대**하여 유지하며, **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영**할 계획이다.

*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: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-공급의무자간 고정금액으로 장기간(12년) REC 계약 체결을 지원
* 선정물량 : [당초 ('16~'17) 200MW, ('18~'19) 250MW → [확대 ('16~'17) 300MW, ('18~'19) 350MW
* 참여대상을 3MW 이하 사업자로 가급적 한정하고, 100kW 이하 선정비중을 60% 이상으로 확대

○ 또한 REC 판로확보를 못한 **선시공물량 해소**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시 **일정비율**(연간 100MW 이상)은 **선시공물량**에 대해 **배정**할 계획이다.

□ '16년 RPS **태양광-비태양광 시장통합 이후**에는 그간 일부 태양광 시장 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던 별도의무량 폐지로 인해 **태양광 시장의 확대가 예상**되며, 비태양광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**신재생에너지 원간 균형 발전**을 **도모**할 수 있을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<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>

□ 기존에는 풍력단지 등 **장기간**에 걸쳐 **단계적**으로 **준공**되는 **신재생 발전소**의 경우, **초기 준공설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발급 신청기한***을 **초과**할 수 있어 **일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**할 수도 있었으나,

*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REC 발급신청

○ 앞으로는 장기간, 단계적 준공설비의 경우에도 **최초 준공설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발급이 가능토록**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발급규정을 **개정**할 계획이다.

* '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' 개정(9월 예정)

□ 또한 **에너지신산업**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력저장장치(ESS) **보급 활성화**와 **대-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** 등을 위해 RPS 의무불이행에 따른 **과징금 산정시 전력저장장치(ESS) 투자실적, 해외 신재생사업 동반진출실적** 등도 적절하게 **반영**하여 **관련 투자를 적극 유도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(☎044-203-5160), 박병기 사무관(☎044-203-51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